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3월1일 주일 설교입니다.

< 장래와 소망이 있는 자 >

잠언 23:17,18 / 새찬송가 419장 (통일 478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1. 인간의 욕망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부터 모방적 욕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 인간은 남을 부러워하며 것처럼 살고 싶어 하는 ‘모방적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행태’를 보며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그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또 ‘그를 닮고 싶지만 닮을 수 없는 상황’인 자기 현실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듯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모방적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욕망이 서로 충돌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 하고, 따라하고,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로 가득하여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불행한 원인입니다.

2.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 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잠 23:17). 즉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에서 나오는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과 일대 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시37:7,8).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악한 자의 성공을 보고 화가 납니다. 동시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하며 답답해하고 원망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스스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일 조차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섞여서 결국 악하게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이 세상이 끝난 후의 일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이 세상에서는 형통해 보이지만 이 세상이 끝난 후 그 인생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이 세상 삶은 심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님이 악인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깨어진 질서를 바로 잡는 것에 있습니다.

또 악인의 형통은 남이 부러워서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어

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결국 증독에 이르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은 반드시 빛을 잃게 됩니다(잠24:19,20).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남처럼 살고 싶은 욕망’, 또 ‘남 보다 잘 살고 싶은 욕망’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나의 가치’를 직접 깨닫는 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해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모방적 욕망’은 내가 남보다 우월해야 채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정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꼭 집어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사43:1).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며 겸손할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사41:14).

3.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형통을 추구하는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지식과 이성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과 이성은 결국 남을 부러워하고 남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과 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남보다 잘 살고 싶어집니다. 또 얻은 지식과 이성을 남보다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지혜여서 나를 억누르는 남을 부러워하고 남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힘을 깨뜨립니다. 이런 지혜를 얻은 자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보며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변화된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시34:19), (시37:24-26), (시1:6).

< 적용 & 실천 >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또 내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것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어떨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